



김여울 기자 광주 FC 시즌오카 캠프를 가다

‘명품 킥’ 이종민 당찬 도전

고참의 힘 ‘발 끝’으로 말하겠다



클래식 무대에서 4차례 우승을 경험한 베테랑 이종민이 광주 FC의 구심점으로 2015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이종민(가운데)이 일본 시즈오카 도키노스미가 축구장에서 열린 류츠게이저대와의 연습경기에서 공을 다루고 있는 모습.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가 기대하는 고참의 힘, ‘명품 킥’ 이종민(33·DF)이 그 중심에 있다.

베테랑 이종민은 광양에 이어 일본 시즈오카 캠프에서도 피동급 후배들과 한방을 쓰고 있다. 남기일 감독이 축구 노하우를 전수하고 후배들이 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고참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내가 후배들 눈치를 보고 있다”던 이종민은 “신인 때 선배가 어려워서 통화도 밖에서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서 편하게 해주고 있다. 통화도 마음껏 하라고 했더니 지금은 전화도 마구 하더라”고 웃었다.

이제는 스스로 없던 후배들은 팀을 위해 빨리 성장해줬으면 하는 경쟁자이기도 하다.

이종민은 “(안)성남이랑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걸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경쟁을 해서 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후배들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잘해서 경기를 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팀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기회를 얻은 것이다. 똑같은 조건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 보되 경쟁에서 밀리지 말라는 말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승격 멤버들의 잔류로 광주의 2015시즌 조직력은 흔들림이 없다. 신인의 힘이 더해지면 클래식에서도 충분히 싸워 볼

위기엔 ‘명품 킥’으로 경기 물꼬

작년 부상 공백에도 3골 6도움

지난해 이적...“광주가 고향 같아요”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종민은 “빨리 경기를 하고 싶다. 새 피지컬 코치를 통해 체력적으로도 업그레이드됐고, 작년에 경기를 했던 선수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조직적인 문제는 없다. 신인들이 준비가 되면 전력이 배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종민은 올 시즌에도 후배 임선영을 도와 부주장을 역할을 수행한다. ‘엄마 같은 주장 아빠 같은 부부장’이다. 그라운드에서 만큼은 누구에게 밀리지 않는 싸움닭 이종민이다.

이종민은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부상 복귀전이었던 강원전(6월8일)이다. (김)호남이에게 킥을 올려줬는데 골로 연결돼 짜릿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다”며 “우리 애들이 순하고 어리니까 감독님께서 리더 역할을 많이 주문하신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복귀하자마자 퇴장을 당했다”고

웃었다.

부상 공백에도 기록했던 3골6도움. 광주의 뒷문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 전방까지 진출해 ‘명품 킥’으로 공격을 풀어내기도 했다.

이종민은 “지난 시즌에 70~8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이를 먹고 와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는데 부상도 있고 초반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 순간순간 더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쉬웠다”며 “(정)준연이랑 수비들을 믿으면서 공격에도 많이 나갔다. 감독님께서도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울산 서울 등의 빅클럽에서 4차례 우승을 맛봤던 이종민은 지난 시즌 광주라는 어려운 선택을 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승격이라는 환희의 순간도 만나며 축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

이종민은 “가족의 힘이 컸다. 경기를 많이 뛰고 싶어서 광주에 왔는데 생각했던 만큼 많이 뛰었다. 포인트도 올리고 승격에도 이바지했다. 이제는 광주가 고향 같다”며 “올 시즌 험난한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팀에 중심이 되고 싶다. 또 예전에 뛰었던 팀들을 만나 이종민을 다시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시즈오카=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제 ‘손뼉’



손흥민 분데스리가 헤트트릭
14골...역대 시즌 최다
‘레전드’ 차범근 기록 -5

마침내 불이 붙었다. 2015 호주 아시안컵을 통해 골 결정력을 끌어올린 ‘손남두’ 손흥민(23·레버쿠젠)이 화끈한 헤트트릭을 앞세워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데뷔 이후 자신의 한 시즌 역대 최다골(14골) 기록을 갈아치우며 확실한 해결사로 이름을 떨쳤다.

손흥민은 14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볼프스부르크와의 2014-2015 정규리그 21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에만 3골을 쏟아내는 헤트트릭을 작성했다.

팀을 후반 종료 직전 결승골을 내주며 4-5로 패했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눈부셨다. 0-3으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던 팀에 연속골을 선사하며 3-4까지 쫓아가는 동력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이날 헤트트릭으로 이번 시즌 12·13·14호골(정규리그 8골·DFB 포칼 1골·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및 본선 5골)을 잇달아 작성했다. 정규리그만 따지면 6·7·8호골을 한꺼번에 맞췄다.

2010년 함부르크 유니폼을 입고 분데스리가 무대에 데뷔한 손흥민이 지난 시즌까지 작성했던 한 시즌 최다골은 12골이었다.

이번 시즌 전반기까지 11골을 터트리며 한 시즌 최다골 기록 경신을 예고했고, 2015 아시안컵 무대에서 짜릿한 골맛을 보면서도 예열을 마친 뒤 후반기 시작 2경기 만에 헤트트릭을 장식하며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14골로 늘렸다.

특히 프로데뷔 첫 시즌에 3골에 그쳤던 손흥민은 두 번째 시즌에 5골을 넣더니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이어가며 분데스리가에서 최고 수준의 공격수로 인정받게 됐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손흥민이 과연 레버쿠젠의 대선배이자 한국 축구의 레전드인 차범근(62) 전 수원 삼성 감독의 대기록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쏠리게 됐다.

차 전 감독은 1985-1986시즌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고 정규리그에서 17골, 포칼에서 2골을 넣으며 한국 역대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득점(19골) 기록을 보유했다.

손흥민은 이제 5골만 넣으면 차 전 감독과 타이 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가파른 상승세와 분데스리가 일정이 많이 남은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총 28경기에 나서 14골을 작성했다. 경기당 평균 0.5골을 터뜨리고 있는 손흥민에게 남은 경기는 최소 정규리그(13경기)와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2경기) 등 15경기다.

산술적으로 차 전 감독의 기록뿐만 아니라 한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유럽 무대에서 한 시즌 20골 고지를 넘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호랑이 군단’ 옥석가리기 첫 연습경기 때패...김원섭·강한울 테이블 세터 시험

‘호랑이 군단’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가 15일 일본 오키나와 우라소에 구장에서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스프링 캠프 첫 연습경기를 치렀다.

신진급 투수들을 내세운 KIA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야쿠르트에 밀리며 첫 연습경기에서 3-14패를 기록했다.

임준섭을 선발로 해 신창호-이준영-박성호-최현정이 테스트를 받았다. 등판한 투수들은 모두 실점을 남겼다.

좌완 임준섭이 제구 난조 속 4개의 볼넷을 기록하는 등 3이닝 3피안타 4사사구 3실점으로 아쉬운 스타트를 끊었다.

4회 마운드를 넘겨받은 신창호는 2이닝 2피안타 1사사구 2탈

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2이닝 동안 13타자를 상대한 신인 이준영은 9번 아라키에게 홈런을 허용하는 등 4피안타(1피홈런) 1사사구 4실점(3자책)으로 진땀을 흘렸다. 8회 박성호는 4개의 안타를 맞으며 1점을 내줬다. 9회에 등판한 좌완 최현정도 3개의 2루타를 포함, 5개의 안타로 대거 5실점을 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타석에서는 김원섭과 강한울이 테이블 센터를 구성했고, 신종길-필-최희섭이 클린업 트리오를 담당했다. 김다원을 6번으로 해 박기남-이흥구-최용규가 하위타순을 책임졌다.

김원섭이 중견수로 나섰고, 2루수 최용규 유격수 강한울의 키

스톤 롬버가 자리에 섰다.

선취점은 KIA가 만들었다. 최용규의 볼넷으로 시작된 3회, 김원섭의 중전 안타와 강한울의 몸에 맞는 볼로 찬스를 만든 KIA는 신종길의 적시타와 상대투수의 보크로 2점을 올렸다.

4회에는 이흥구의 2루타에 이어 최용규의 적시타가 나왔지만 마운드 부진 속, 추가 점수를 내지 못하면서 경기는 3-14 패로 끝났다. 실점을 통해 옥석 가리기에 돌입한 KIA는 앞으로 라쿠텐(16·20일), 니혼햄(17일), 요코하마(19일), 한화(22일), 히로시마(24·26일), 넥센(25·27일), 삼성(3월1일)과 연습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